+입법정보

계간 세종의정

겨울호

2023년
통권 제38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시민과 함께한 2023년,

2024년에도 시민의 일상 속에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5회 임시회 개회사



SEJONG CITY COUNCIL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순열**입니다.

지난 6일 국회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이 국회 본회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2016년 6월 20일 시작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안이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드디어 실현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해주신 덕분에 이제 설계와 착공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종시가 '세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기 전부터 지켜오셨던 삶의 터전을 내어주신 분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희생 덕분에 '국회 세종시대 개막'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통령 제2집무실까지 더해져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하고,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 정부의 소요예산 반영, 설계 및 공사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킨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식재료 안전에 대한 시민과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가 큽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이후에도 일본 후쿠시마 인근 열네 개 현에서는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산물이 검출됐고, 후쿠시마 등 여덟 개 현에서 제조·생산된 수산물 가공품의 수입은 15톤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을 이용한 가공품의 국내 유통은 파악조차 어려워 가공품의 형태로 언제든지 우리 시민들의 식탁으로 올라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철저한 검사와 결과 공개 등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학교급식에 쓰이는 수산물 등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학부모와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 국정감사 이후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종의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85회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 등을 청취합니다.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과 지방채 발행까지 언급되는 상황입니다. 사업 시기와 타당성, 적절성 등을 따져보고 불요불급한 사업이 없는지 상정된 안건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 순 열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목차



표지이야기
겨울은 추위에 은폐되는 계절이 아니라 누구든 스스로 은닉하는 계절이다. 멈춤과 소멸이 아닌 '준비의 시간', 가을에 생을 다하고 눈 속으로 은닉해 자연의 생동으로 돌아가는 잎처럼, 세종시의회의 겨울도 다가올 봄을 위한 준비로 분주하다. 지나온 시간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녹아 있다. 2023년 12월,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시간이 녹아 있는 두 번째 겨울을 읽어보자.



05 **제85회 임시회 개회사**

08 **의정포커스**

10 **결의안**

12 **주요안건처리현황**

15 **의회인터뷰**

Ⅰ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꿈꾸다 김동빈
Ⅱ 세종, 그 무엇보다 '속도'가 필요할 때 안신일
Ⅲ 진실한 자세로 '소신정치' 실천할 것 여미전
Ⅳ 수도선부水到船浮의 마음으로 의정활동 임해야… 최원석

2023 통권 제38호

발 행 일 2023년 12월 15일
발 행 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 행 인 이순열 의장
제작부서 홍보기획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10


16


26


32


48



53

32 **상임위원회 활동**
-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0 **5분 자유발언**

45 **긴급현안질문**

46 **주요언론보도**

48 **세종스케치**_ 역설의 계절 겨울

52 **의정주요뉴스**

55 **연구모임뉴스**

58 **입법정보**
- Ⅰ 생활법령
- Ⅱ 주요입법동향
- Ⅲ 법령해석사례
- Ⅳ 최근시행법령
- Ⅴ 타 지자체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74 **의회홍보채널 안내**

FOCUS

세종시의회 제85회 임시회 개회 제2회 추경 등 심의

10월 12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일까지 16일간 회기 진행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열린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일까지 16일간 제85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했다.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김효숙·안신일·여미전·김현옥·김학서·김현미 의원이 주요 시정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유인호 의원이 최민호 시장을 대상으로 세종시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긴급현안 질문을 했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의회운영위원회는 제85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0월 1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3년 세종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청소년의회교실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세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 '세종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은 원안 가결했다.

또한, 지난 제83회 정례회 당시 보류되었던 안건 '세종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은 '의장이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상임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했다.

조례안 심사에 이어 진행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지난 16일 제출된 수정안과 병합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시행 2023.9.22.)에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교섭단체 지원 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담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토록 가결했다.

마지막으로 10월 27일, 제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63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가 종료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위해 발언대에 올랐다. 여미전 의원은 '시민의 여민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박란희 의원은 '한글사랑도시 세종시 공공언어 사용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광운 의원은 '인근지자체와 상생협력 강화'를 주제로, 김현옥 의원은 'AI푸드 스캐너로 급식 잔반 줄이고 친환경 기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4건, '2024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27건,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 합의각서 변경 체결 동의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19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2건,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이다.

김영현 의원 발의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협력과 후속 조치 요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0월 12일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계 및 건설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안 통과 이후, "땀과 노력의 시간 끝에 드디어 정상궤도에 올라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현 의원은 "국회규칙 통과로 세종의사당 건립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며, "압도적 지지 속에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신 여야 정치권과, 세종시민, 충청인,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세종시의회는 "정부와 국회는 2029년까지 세종의사당 완공을 목표로 하여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결의안 채택의 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종의사당 건립과 함께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과 공공기관 이전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여미전 의원 발의

세종시민 사법접근성 제고 및 세종시 위상확립을 위한 법원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0월 27일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제고와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 나아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세종시의회가 그간 법원 설치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집행부 등과 연계하여 지속하여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과 「행정소송법」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여미전 의원은 “반곡동 일원에 법원 부지가 준비되어 있고, 행복청의 ‘행복도시 특별회계’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만 통과된다면 법원의 신속한 건립이 가능하다”라며 법원 설치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요안건 처리현황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2023. 10. 12.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비 고
제1항	긴급현안질문	-	유인호 의원
제2항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원안가결	10.12.~10.27. (16일간)
제3항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원안가결	김광운 의원 김동빈 의원
제4항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계 및 건설 요구 결의안	원안가결	김영현 의원
제5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제6항	휴회의 건(2023. 10. 13. ~ 10. 26. / 14일간)		

2차 본회의

2023. 10. 27.

소 관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의 회 운 영 위원회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제안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	수정가결
행 정 복 지 위원회	제5항	2024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6항	2024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7항	2024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2항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소 관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제13항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14항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15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16항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17항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원안가결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원안가결
산업건설위원회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35항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동의안	원안가결
	제36항	슬레이트 처리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원안가결
	제37항	대전세종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소 관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제38항	제1,2,3,5,12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39항	전동시민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교육안전위원회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문화생활 바우처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제53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54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5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제56항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60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예결특위	제6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철회안	원안가결
	제6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원안가결

의회

의회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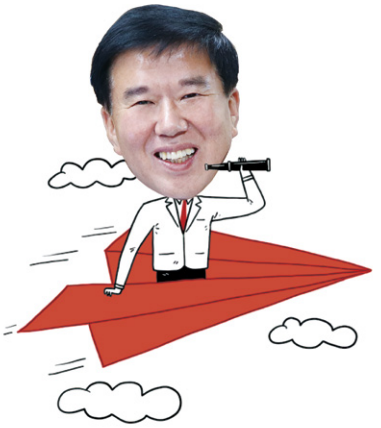
Ⅰ 김동빈 의원 • 16
Ⅱ 안신일 의원 • 20
Ⅲ 여미전 의원 • 24
Ⅳ 최원석 의원 • 28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꿈꾸다

김동빈 의원

도시와 농촌, 아직 함께하기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두 단어다. 김동빈 의원은 색채는 다를지라도 가치의 차이는 없을 이 두 지역을 함께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자 한다. 세종에서 태어난, 세종에서 자란, 그리고 세종에서 일하고 있는 김 의원이 꿈꾸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과연 어떤 모습일까? 매 순간 더 나은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김동빈 의원의 방에서 그 청사진을 엿보았다.





Q 초선 의원이시다. 처음 지방의원이 되겠다고 결심했던 계기는 무엇이었나?

A 저는 세종 토박이다. 태어나기도 금남면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지역의 현실, 특히 면 지역의 현실을 몸소 느끼며 깨닫고 살아온 장본인 중 하나다. 면 지역의 목소리를 알리려 이장도 하다가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의 한계를 느꼈다. 시민과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시청에도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시민 삶을 더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의원이 되었다. 아울러 세종의 과거를 모두 몸소 느끼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세종시가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서 면 소재지도 발전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여기는 제 고향이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곳이다. 의원을 하면서 양심껏 최선을 다해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싶었다.

Q 지방의원으로서 가장 관심을 두고 활동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A 세종시는 현재 도시와 농촌의 발전 격차가 심하다. 모두 같은 세종시인데, 어떤 동네는 엄청 시골 같고 어떤 동네는 너무나도 발전한 도시의 모습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한 도시 안에서 동 단위와 면 단위의 발전 속도가 현저히 차이 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시의원으로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여 발전할 방안을 모색하고, 이미 벌어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은 그 색채가 다를지라도 가치의 차이는 없기 때문이다.



Q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저는 그 해결책이 '도로'라고 생각한다. 도시기본계획 중 가장 중요한 것도 도로라고 생각한다. 도로는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위한 제1의 조건이다. 도로를 개설해야 사람이 오가고, 또 모이기도 한다. 소속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늘 주안점을 두고 활동하는 것도 읍과 면 소재지의 소외됨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소외를 해결할 실마리가 바로 '도로'이다.

Q 현재 가구가 적은 지역에는 정규 노선이 아닌 '두루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A 해마다 버스 적자 노선이 발생한다. 사실 한 동네에 다섯 가구가 산다고 해도 버스는 가야 한다. 그들도 이동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이동권과 버스 노선의 적자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두루타'라는 서비스가 생긴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 정책은 정말 좋다고 생각한다. 버스가 가는 지역의 현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이동권이라는 개념만을 해결하기 위해 큰 버스가 빈 차로 하루에 몇 번씩 그곳을 오가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두루타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비효율성도 줄인 현실정치가 아닐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Q 이밖에 면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

A 세종 도심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다. 그런데 면 단위는 시설이 낙후된 곳이 많다 보니 재난에 취약하다. 올해도 정말 심각한 폭우가 세종시를

강타했다. 도심에도 피해가 있었지만, 면은 산이 무너지고 도로가 잠겨 사람이 다치고 고립되는 일이 발생했다. 폭우가 지나가고 나서는 농작물이 상하고, 소의 주식이 될 사일리지가 모두 상하는 등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발생했다. 특히 사일리지 같은 부분은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도 한 상태다. 이번 재난은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더 바삐 움직여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계기였다.

Q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

A 의원이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생각보다 매우 많은 관문을 거쳐야만 변화가 시작되더라. 시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것이다. 내 마음처럼 빠르게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시청 등 공무원 조직은 행정의 절차가 늘 있다. 그 절차를 기다리다 보니 제가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고, 시행되기까지의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다.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Q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은?

A 현재 4대 의회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현실을 마주했다. 하지만 목적지를 향해 가는 차가 고급 차든 아니든 상관없는 것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세종 도농의 상생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시민을 대변하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는 의원이 되겠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열정으로 열심히 일하겠다.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 목적지를 향해 가는 차가 고급 차든 아니든 상관없는 것처럼,
>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세종 도농의 상생발전을 위해
> 아낌없이 노력하고자 한다.



세종, 그 무엇보다 '속도'가 필요할 때

안신일 의원

"지금 세종시에는 그 무엇보다 속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1월 인터뷰를 위해 만난 안신일 의원은 세종에 가장 필요한 점을 바로 '속도감 있는 정치'라고 표현했다. 지난 2023년 10월 6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이 2년 만에 통과되었다. 안 의원은 기뻐함과 동시에 착공까지 부지런히, 그리고 빠르게 나아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오래 전부터 마음 근간에 둔 이념처럼 '겸손하고 또 지혜롭게' 세종 시민이 행복할 세종시를 꿈꾸는 안신일 의원을 만났다.





Q 초선 의원이시다. 처음 지방의원이 되겠다고 결심했던 계기는 무엇이었나?

A 저는 첫마을학교 주민자치협의회장, 자치분권위원회 주민자치전문위원 등 마을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정치를 하게 되어 의회까지 온 케이스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 의정활동의 목표는 작은 공동체인 마을에 보탬이 되고,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 마을을 중심으로 활동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동사무소와 같이 동을 관할하는 곳으로 갔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시청으로 가라고 하고, 시청에서는 다시 행복청으로, 행복청에서는 LH로 가라고 하더라. 더군다나 LH에서는 다시 교육청으로 가라고 하고, 심지어 정부 부처에게 문의하라고 답변하는 곳도 있었다. 마지막에는 결국 돌고 돌아 제자리였다. '다른 시민분들도 이런 걸 정말 자주 겪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제도권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저를 포함해서 세종에는 이주민들이 정말 많다. 이주민의 어려움과 애환, 그것을 겪은 장본인이었고 그것을 해결하고 싶었다.

Q 지방의원이 된 후 가장 힘들었던 적이 있다면 언제였는지?

A 솔직히 지금도 계속 난관이다(웃음). 한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시민들의 언어와 공무원들의 언어가 달라서 오는 부분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크다.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민원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시는데,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기도 한다. 예산은 1년 단위로 세워지는데 민원이 그 예산의 주기에 따라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민원을 해결하고 조례



를 발의하고, 입법까지 가기엔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시민의 언어와 공무원의 언어가 다르다는 표현을 쓴 것이다. 그래서 의원으로서 시민들의 민원을 정말 빨리 해결해 드리고 싶다. 의원들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서 그 언어의 간격을 좁혀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지방의원으로서 활동하며 근간에 두는 신념이나 가치관이 있다면 무엇인가?

A 세종시의회 의원이 된 지 이제 1년 반 정도 지났다. 그렇기에 저는 아직 가치관을 만들어 가는 중이다. 다만 많은 분이 이야기하셔서 조금은 진부할 수도 있지만, 저는 늘 초심을 잃지 말자는 말을 되새긴다. 제가 생각하는 초심은 '투표해 주신 분들에 대한 마음'이다. 우리를 뽑아주신, 시민들을 향한 마음. 쉽게 말하면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은 일로 승부 봐야 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고도 생각한다. 그래서 스스로 늘 이야기하는 바가 '지혜롭고 겸손한 일꾼'이 되자는 말이다. 이것이 제가 여전히 잊지 않고 노력하려 하는 초심이다. 아울러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만나는 사건, 현상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보려고 노력한다.

Q 현재 교육안전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다. 중점을 두시는 부분이 있다면?

A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저는 '세종시'에 관심이 많다. 지방 분권의 상징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 가는 도시기도 하다. 우리 세종시의 변화와 발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도 마찬가지다. 아시안 게임보다 참가국도 많고 그만큼 규모가 큰 국제대회다.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세종시가 큰 기회를 가지길 바란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남의 집 잔치가 아니고 정말 우리 세종 아이들이 주역이 되고, 세계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아울러 유보통합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치는 것은 시청과 교육청의 공통된 업무다. 세종시는 아직도 지어야 할 건물들이 많다. 그 말은 그만큼 앞으로도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나뉘면 어린이집에 관련된 시설, 유치원에 관련된 시설을 따로 지어야 한다. 다 같은 우리 세종시 아이들이 어

디 다닌다는 사실로 나뉘어선 안 된다. 아울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서 건물을 지으면 시 입장에서는 훨씬 더 빛나는 시설을 짓고도 예산을 아낄 수 있다. 그래서 '유보통합'이라는 것이 큰 틀에서 필요한 것이다. 이는 세종시가 다른 17개 광역 시도와는 달리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곳이라는 방증도 된다. 더군다나 교육부도 옆에 있다. 세종시가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제도를 선도할 수 있는 적지라고 생각해서 강조하고 있다. 장차 세종을 이끌어 갈 인재들도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연령층인 학생들이다. 앞으로 전국에서 세종으로 이주를 올 텐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교육이 돼야 한다고 본다. 강점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 기반 시설과 체계, 그것이 장차 세종시의 강점이 되었으면 한다.

Q 세종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정책적 약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A 저는 그 약점을 한마디로 '속도'라고 표현하고 싶다. 이 도시는 이제 11살이다. 그래서 당연히 완성이 덜 된 도시다. 도시의 완성까지, 그 사이의 많은 부분이 생기는 과정에 서 있는 도시다. 이런 이유로 당연히 수많은 갈등,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걸 해결할 방안이 바로 속도다. 저는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하루라도 빨리 준공하는 것이 모두의 숙제라고 생각한다. 거시적인 한 맥의 문제 말이다. 우리가 모두 힘써야 할 것이 바로 속도다. 모든 문제는 느린 속도로부터 왔다. 국회규칙 통과까지도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지금도 기뻐함과 동시에 속도전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밀린 2년을 회복할 만큼 속도를 내서 부지런히 나아가 준공일자, 착공 일자를 당겨야 한다. 그래서 세종시에 가장 부족했던 점도 속도, 가장 필요한 점도 속도라고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은?

A 어느덧 연말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저를 포함한 20명의 의원님이 정말 열심히 달려서 여기까지 오셨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 하지만 시민분들 보기에 부족한 점도 많았을 것이다. 그래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시민을 향한 진정성 있는 마음 오롯이 전해질 수 있도록 남은 의정활동 기간도 정성을 다해 일하겠다. 세종 시민 여러분 모두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 많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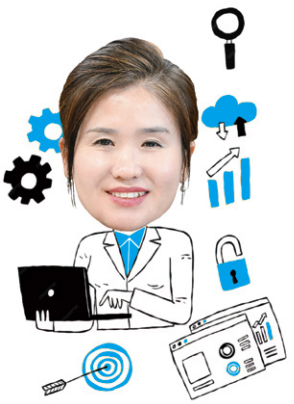
>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 시민을 향한 진정성 있는 마음 오롯이 전해질 수 있도록
> 남은 의정활동 기간도 정성을 다해 일하겠다.



진실한 자세로 ‘소신정치’ 실천할 것

여미전 의원

추위가 완연했던 어느 가을, 제86회 정례회를 앞둔 시기에 찾은 여미전 의원의 의원실은 소리 없는 분주함이 가득한 곳이었다. 초선 의원이지만 지난 1년간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열정으로 사회의 어려운 이면을 알리고자 노력해 온 그는 인터뷰를 통해 "진실, 성실, 절실함을 바탕으로 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는 삶의 변화를 준다는 믿음이 있다"는 신조를 전했다. 이 믿음을 근간에 두고 소신정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여미전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Q 초선 의원이시다. 처음 지방의원이 되겠다고 결심했던 계기는 무엇이었나?

A 의원이 되기 전 여러 가지 일을 하기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도 활동했다. 그중에서도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장으로 활동할 때 지방의원이 되어야겠다는 가장 큰 계기를 얻었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입금을 높이기 위해 교섭을 시도했지만, 사용자와 대화하기 위한 길에 놓인 그 장벽은 높기만 했다. 하여 그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절규하며 삭발과 단식을 거행도 해봤지만,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그 목소리,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동자였던 경험, 사용자와 대화하고자 부단히 애썼던 숱한 경험들이 직접 정치를 해야겠다는 각오로 발전했다. 그렇게 지방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다.

Q 지방의원이 된 후 가장 힘들었던 적이 있다면 언제였는지?

A 세종시의회는 전국에서 유일한 여소야대 의회다. 이런 구조에서 제4대 의회 출범 당시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를 역임했다. 협치를 위해 효율적인 교섭을 이끌고 의회에서 원활한 교류의 장을 구성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양 정당의 중심에서 무게중심을 잘 잡지 못해 대립과 갈등의 모습을 보여드린 부분이 일부 있었다. 아직도 그 점이 세종시민분들께 송구스럽다.

그 밖에도 의회 내부의 여러 잡음과 대립, 갈등의 상황에서 한 의원으로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비공개 긴급 의원총회를 20여 차례 넘게 진행하기도 했다.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을 통일된 의견으로 조율하는 과정은 참으로 긴 인고의 시간이었다.



또한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맞춰 실시간 언론에 대응하기 위한 성명서, 논평, 입장문 작성 등과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대응해야 했던 급박한 판단들, 그 수많은 행보를 감내해야 했던 원내대표의 역할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그 난관들이 모두 더욱 더 단단한 지금의 여미전을 만들어 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갈등을 딛고 일어선 경험이 모두 의정활동을 더 성숙하게 이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된 것 같다.

Q 지방의원으로서 활동하며 근간에 두는 신념이 있다면 무엇인가?

A 진실, 성실, 절실함을 바탕으로 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는 삶의 변화를 준다는 믿음이 있다.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활동했을 때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조합원을 만나기 위해 세종과 태안 서산 등 각지로 찾아갔다. 어떤 날에는 왕복 6시간 이상 소요되는 학교도 있었지만, 마다하지 않고 현장을 찾았다. 그 과정에서 그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경청하였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지금 다시 돌아보니 진정성을 담은 행보 덕분에 조합원들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할 수 있는 지부장이라는 호평을 받은 것 같다. 또한 그 신뢰는 총파업 80%이상의 집결률이라는 믿음의 결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마침내 단체협약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마주했던 기억이 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저는 '진정성 있는 자세'가 진정한 삶의 자세이며 정치인으로서 갖추고 지켜야 하는 제1의 덕목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할 예정이다.

Q 현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다. 중점을 두시는 부분이 있다면?

A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적약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그리고 사회적약자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세종시 예산이 2023년 올해 대비 현저히 줄어 내년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민생에 직결되거나, 사회적 약자에게 집행되어야 하는 예산은 배제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Q 세종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정책적 약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세종시는 도농복합도시다. 동 지역 도심은 새로움과 젊음이 넘쳐나는 도시지만, 이와 반대로 북세종권역은 심각한 고령화 때문에 인구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현재 세종시에서는 도시와 농촌이라는 두 축에서 균형 잡힌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닌 동 지역에 국한된 정책이 중점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도시 불균형이 더욱더 심화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도농복합도시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적 마련, 그리고 적절한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이를 개선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북세종권역은 넓은 땅과 비교적 저렴한 땅이 많다. 동 지역은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대단지 어린이 놀이시설, 캠핑장, 그리고 미래식량 먹거리 개발을 위한 스마트팜 등의 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시설들을 설치해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작, 가공, 판매, 체험으로 이어지는 6차산업 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 즉, 도시와 농촌 간 연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도시도 발전함과 동시에 농촌에는 안정적 수입을 주고, 청년이 유입될 방안일 것이다. 그 때문에 이처럼 도시-농촌 간 연결된 구조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은?

A 시의원으로 첫발을 내디딘 기억이 바로 어제 같았는데 벌써 2년 차에 접어든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접해보지 못한 막연함에 걱정이 앞선 시간이었다. 가마솥의 온기가 서서히 올라 그 뜨거운 온기를 오래 품듯, 느리더라도 가마솥의 뜨거운 온기를 가슴에 품고 세종시민 곁에서 추운 겨울 손발을 녹여줄 수가 있는 가슴 따뜻한 시의원으로서, 바르게 제대로 열심히 잘하는 시의원으로서의 모습 보여드리겠다. 여민전 카드처럼 곁에 두면 둘수록 유용하고 든든한 시의원이 되기 위해 오늘도 뚜벅뚜벅 시민들께 다가가 '잘 뽑았다', '잘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소신정치를 실천해 확실한 믿음을 얻어서 나아가겠다.





오늘도 뚜벅뚜벅 시민들께 다가가
'잘 뽑았다', '잘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소신정치를 실천해
확실한 믿음을 얻어서 나아가겠다.



수도선부水到船浮의 마음으로 의정활동 임해야...

최원석 의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의미의 사자성어에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때가 올 때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급해하지 말고 노력하라"는 내면의 뜻이 숨겨져 있다. 11월, 가을의 끝 무렵 만난 최원석 의원의 말투에는 본인의 신조처럼 때를 기다리며 우직하게 노력하는 이의 성실함이 녹아있었다. 큰 목표를 향해 작은 것부터 서서히 완성하며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최 의원, 그의 이야기를 청해본다.





Q 지방의원이 된 후 가장 힘들었던 적이 있다면 언제였는지?

A 초반에는 불규칙한 업무시간과 잦은 술자리, 주말이 없는 삶 등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많이 익숙해져서 이젠 할만하다. 지금까지 시의원으로서 수행했던 업무를 되돌아보면, 가장 힘든 것은 육체적인 문제 이외의 것들이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각처럼 쉽게 풀리지 않거나 반영되지 않을 때, 그리고 결국 이러한 상황들이 시의원의 한계로 인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 때 굉장히 절망적이었다.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안들이나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 등을 추진 하는 일 등 많은 일에 힘썼는데, 돌이켜보면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다. 또한 많은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선 많은 근거가 필요한데, 근거를 조사하고 또한 정제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와 고심이 필요하다는 점도 깨닫게 되었다.

Q 지방의원으로서 활동하며 근간에 두는 신념이 있다면 무엇인가?

A 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의정활동의 좌우명을 수도선부(水到船浮)로 정했다. "물이 차오르면 배는 저절로 떠오른다"라는 의미다. 저는 성격이 매우 급한 편이라, 답답함을 못 견디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따라서 천천히 신중하게 가자는 의미를 담아 스스로 되뇌기 위해 정했다. 아울러 큰 목표를 향해 작은 것부터 서서히 완성하며 나아가자는 다짐을 잊지 않고 매 순간 상기하기 위한 의미도 있다. 물이 차오르지도 않았는데 욕심부려 배를 움직이려 해 봤자 배는 움직이지 않고 힘만 소비될 뿐이다. 앞으로도 욕심을 비우고, 노력하는 자세로 물이 차오를 때를 기다리며 차분하게 의정활동에 임하려 한다.



Q 현재 행정복지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다. 중점을 두시는 부분이 있다면?

A 우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는 업무의 분야가 단순하게 숫자로만 따졌을 때 다른 상임위에 비해 많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2년의 임기 동안 1년씩 나눠서 주제를 하나씩 잡았다. 첫 1년은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의 복지 등에 집중했다. 그다음 해인 지금은 청년 정책이나 청년 축제 추진 촉구 등 세종의 미래 자산이 될 청년들의 삶에 관심을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현재 다른 지자체와 같이 세종 또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통을 이어받았다. 많은 예산이 감액되거나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 예산을 잘 살펴보고 우리 세종시에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은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살리고, 불필요한 사업들을 잘 걸러내도록 힘을 기울일 전망이다.

Q 세종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정책적 약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세종은 원래 황무지와 논밭이었다. 그랬던 곳이 10년 사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가 되었다. 그런데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여전히 '만들어지는 중'인 도시다. 문제는 그 '완성되어 감'의 과정과 결과가 우려스럽다는 점이다. 도시의 외적 완성도를 위해 새로운 지역들은 기성품 찍어내듯이 완성 되어가고 있으며, 예산과 공기의 문제로 인해 묘안보다는 절충안들이 쓰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완성된 지역들을 손보고, 재구축한다는 걸 기대하기 힘들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심화할 것이다.

Q 그렇다면 이를 개선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도시에 색깔을 입혀야 한다. 또한 읍면동 지역도 저마다 색깔이 필요하다. 도담동을 하나의 예로 들면,

서울의 종로와 환경이 매우 유사하다. 1세대 도심이며, 세종시 교통의 요지다. 정부 부처와 인접해 있고, 청계천과 같은 방축천이 있다. 그렇다면 종로처럼 교통이용자들의 편의를 좀 더 증진하고, 정부 부처와 인접한 메리트를 잘 살릴 수 있는 도시 계획이 필요하다. 더불어 청계천처럼 등불 축제와 같은 문화의 색깔을 입히면 된다. 우리시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검증된 도시정책을 잘 차용만 해도 될 것이다.

하지만 서울 강남의 도시정책을 종로에 적용할 수 없는 것처럼 지역마다 그 고유한 특징을 보완하고, 특화할 정책은 따로 있다. 하지만 우리시는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할 방안은 시의원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시의원들은 각 지역구의 대표로서 해당 지역의 전문가이며 해당 지역의 강점, 약점을 잘 파악하고 있고, 아울러 발전을 위해 매 순간 고심한다. 일방적인 정책을 가져와서 시의원들이 조정하고, 수정하는 것이 아닌 정책 수립의 처음부터 시의원들이 함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수정하는 시간도 줄고, 정책은 더욱더 동네 저마다의 특징에 맞춘 형태로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은?

A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다. 건강을 챙기셨으면 한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다. 올해 겨울은 가끔 봄날 같다가도, 또 어느 날은 여지없는 한파가 몰아친다. 의정활동을 하며 마주하는 매 순간이 제게는 이 변덕스러운 날씨와도 같다고 생각한다. 어느 날은 따스하고, 어느 날은 혹독하다. 그럼에도 계절의 변화를 겪은 자연이 더욱 무성하듯, 최원석이라는 사람 또한 많은 순간으로부터 오는 경험으로 발전하고, 단단해지는 시의원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많은 순간으로부터 오는 경험으로 발전하고, 단단해지는
시의원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의회운영위원회


유인호 위원장


김동빈 부위원장


김광운 위원


김현옥 위원


김효숙 위원

Steering Committee



제85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85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0월 1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3년 세종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청소년의회교실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세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 '세종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은 원안 가결했다.

또한, 지난 제83회 정례회 당시 보류되었던 안건 '세종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은 '의장이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상임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했다.

청소년의회교실과 관련하여 김현옥 위원은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소양과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의회견학과 본회의방청 프로그램은 대상의 확대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례안 심사에 이어 진행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지난 16일 제출된 수정안과 병합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유인호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낙찰차액 등으로 생긴 집행잔액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운용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시행 2023.9.22.)에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교섭단체 지원 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담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토록 가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



유인호 부위원장



김재형 위원



김충식 위원



김현미 위원



여미전 위원



최원석 위원

Administrative Welfare Committee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 심사·의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0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8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23건, 동의안 14건 등 2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8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포함한 제정조례안 6건, 일부개정조례안 17건 및 동의안 14건 모두 원안가결됐다.

임채성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에 담긴 내용들에 대한 지적과 제안사항을 시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더욱 충실해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3년 제2차 추경예산안 등 심사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회의에 이어 10월 18일과 19일 양일간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및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회는 16일 제출되었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작성 오류로 인해 제출이 철회됨에 따라 기 제출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을 대상으로 예비 심사를 진행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6천만 원 규모로 감액 편성,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액 대비 6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되었다.

이날 임채성 위원장은 “지방세 수입과 교부세의 감소, 물가 상승 및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둔화가 이어짐에 따라 내년도 재정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은 예산의 집행과 정리, 본예산 편성에 있어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행정복지위원회는 11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부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시정에 대해 면밀한 관심이 담긴 질의를 이어갔다. 임채성 위원장은 “우리 시 청년인구 감소와 관련해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집행부에서는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등도 함께 나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최근 국가균형발전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시책은 국가·중앙부처와의 관계에서만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며 “현재 우리 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이 올해엔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구호로만 남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여미전, 최원석 의원이 시정 주요 업무와 관련한 심도있는 질의를 이어나갔으며, 임채성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 여러 사업 가운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2024년 본예산을 포함한 이번 제86회 정례회 안건 심의 시 면밀하게 함께 살펴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지 심도 있게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현정 위원장


김동빈 부위원장


김광운 위원


김영현 위원


박란희 위원


상병헌 위원


윤지성 위원

Industrial Construction Committee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85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13일 제1차 회의를 열어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계 및 건립 요구 결의안' 1건을 심사하고, 16일에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2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업건설위)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을 심사했으며, 19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 3건은 보류 의결했다.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회기 중 의결된 산업건설위 소관 조례안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이 확대되어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이 제공되길 바란다. 아울러 하수도 요금 인상 기준 적용 유예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의결로 근거 규정이 마련된 각 분야 지원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10일 나성동 세종신용보증재단 5층 대회의실에서 세종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현정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영현, 박란희 의원, 황현목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세종신용보증재단 김호병 이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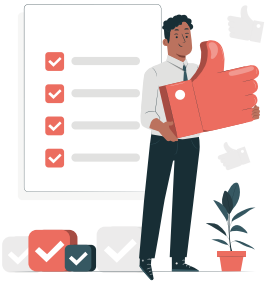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세종시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현재 상황은 코로나19 당시보다 심각하다”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들을 건의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소상공인연합회와 대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지속하여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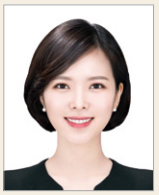
김영현 의원은 “대부분의 세종시 축제는 호수공원과 이응다리에서 진행이 되어 아쉽다”며, “나성동 도시상징광장에서 축제를 열면 주변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란희 의원은 “소상공인 전담 지원기관인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립 당위성은 충분하나, 향후 설립될 일자리경제진흥원과의 업무 이원화 방지 등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꼼꼼히 살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현정 위원장은 관내 기업·소상공인 등과 대화를 지속할 예정임을 밝혔다.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


김현옥 부위원장


김학서 위원


김효숙 위원


안신일 위원

Education Safety Committee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의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85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16일과 18일에 조례안 9건 및 동의안 등 4건을 심의·보고 청취하였고,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했다.

16일 1차 회의에서는 교육청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총 9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교육청 소관 조례* 1건,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 1건, 총 2건은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이날은 보고청취 1건, 제출건 1건도 함께 다뤘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8일 2차 회의에서는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41억 원,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697억 원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은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통해 “금회 추경예산안은 재해재난 복구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올해 예산 사용시일이 많지 않은 만큼, 지원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창의융합교육축제 체험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살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10월 20일 오전 세종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제5회 창의융합교육축제에 참석하여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오후에는 세종시공공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급식센터의 전반적 운영 현황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오전 창의융합축제에서는 세종시 교사와 학생들이 준비한 과학, 수학, SW, 환경 등 학교별 체험마당 부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였으며, 행사 준비에 힘써준 관계 공무원을 격려했다. 참고로 2023 제5회 창의융합축제는 체험, 전시, 강연, 대회, 참여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다. 오후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는 학교에 납품하는 농·축·수산·가공품 등 식재료의 품질을 직접 확인하고, 배송 차량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급식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보고 받았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공공급식지원센터에 팀장을 포함하여 5명을 파견했으며, 파견 직원들은 원활한 학교급식지원을 위해 근무하고 있다.

이소희 위원장은 “앞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한 식재료를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학교급식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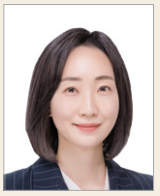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옥 위원장


김광운 부위원장


김영현 위원


김학서 위원


김효숙 위원


박란희 위원


여미전 위원


유인호 위원


최원석 위원

Budget and Settlement Special Committee



제85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추경안 심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예결특위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 세종시장이 제출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470억 원(2.13%)이 증가한 총 2조 2,545억 원 규모로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 보조 사업과 지방세 감소, 보통교부세 감액 조정 등을 반영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 결과 2023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였다. 김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심의했다"고 강조하였으며, "예결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은 사업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집행을 철저하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회

5 MIN

5분 자유발언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41
제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43

5분 자유 발언



김학서 의원
전의·전동·소정면, 국민의힘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전의읍지 연구와 학술대회 개최 위한 행·재정적 지원 촉구

김학서 의원은 세종시 북부 지역의 역사인 '전의읍지' 연구를 촉구했다.
김학서 의원은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1914년 부군면(府郡面) 통폐합 정책에 따라 올해가 '연기와 전의 통합 110년'인 점을 강조하면서, 많은 유적과 유물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인근 지역에 비해 지역학의 연구 성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의면의 주요 연구 과제로 국보 1점과 보물 3점의 출토지인 비암사와 운주산성 및 이성, 금이성 등을 포함한 성곽 유적을 꼽으며 산적해 있는 연구 과제들이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조선시대 전의 행정관청의 모습을 포함해 조선시대 후기 세종시 북부 지역의 연혁과 변천 과정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전의읍지' 등 지역사 관련 연구가 활발해져야 한다"며 전의읍지 연구와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
소담동, 더불어민주당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정책 제안 수용 없이 이해할 수 없는 시정 추진하는 세종시

김현미 의원은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세종시의원들이 제안한 정책은 외면하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책만 추진하는 세종시 시정을 비판했다.
앞선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시의 재정 부담을 걱정하여 독일의 9유로 티켓처럼 저렴한 정기권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바 있지만 세종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아울러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 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는 현재 CIB라는 기구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인증의 의미와 법적 효력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현미 의원은 "현행 법령상 국제행사 승인이 어려워 국비 확보 없이 450억 원을 모두 시비로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세종시민들은 이미 확보된 녹지에 나무와 꽃을 심으며 도시를 소중하게 가꿔가길 바라는 것이지 정원도시 인증이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5 MIN 5분 자유 발언



김효숙 의원
나성동, 더불어민주당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텅 빈' 도시상징광장, 세종시민의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개장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도시상징광장'의 실태를 지적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현재, '도시상징광장'은 '광장'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텅 빈 모습이며, 대형 상업시설과 문화시설이 바로 인접해 있음에도 그저 물리적인 공간에 머무르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세종시가 '도시상징광장'을 인수한 지 만 1년 동안 '광장'에서의 공식적인 행사는 단 두 번 이었음을 언급하며, 활성화 방안으로 ▲광장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 정비 및 그늘막이나 수목이 있는 휴게시설을 보강 ▲도시민들에게 문화적 다양성을 제공하는 광장의 공간적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계절별 프로그램' 적극 기획 ▲광장 이용 편의를 위한 '사용예약 시스템' 개선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가 '도시상징광장'의 조성 취지를 되새기고, 제안 사항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안신일 의원
한솔동·장군면, 더불어민주당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세종시는 유보통합 발전 최적지, 선도정책 제시해야

안신일 의원은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형 유보통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10년째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세종시는 출범 11년 차 신생 도시로 정책의 타당성과 합리성으로 합의가 가능한 지역적 특성이 있으며, 유보통합의 각 추진 과제를 현장에 적용하고 성과와 한계를 통해 일반적인 정책으로 도출하기 적합한 여건을 갖췄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유보통합을 우리 시의 중요한 현안 과제로 인식하고, 유보통합 발전의 최적지인 세종시의 강점을 활용하여 선도적인 정책과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정립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유보통합 발전의 최적지는 세종시"라고 거듭 강조하며, "유보통합을 통해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아이들의 미래를 '지금 여기, 바로 세종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여미전 의원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법원 설치를 위한 정부 여당 시장의 노력을 촉구한다

여미전 의원은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세종시 지역을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2022년 기준 사건접수는 125만여 건으로, 전국 평균인 87만여 건보다 38만여 건이나 많아 사법 수요 분산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전지방법원 행정소송 사건 수 역시 지난 10년간 776건에서 1,257건으로 약 60% 급증하여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을 위해 행정법원 설치도 필요하다.

그러나 여미전 의원은 법원 설치를 위한 여당 소속 시장과 집행부의 노력이 세종시민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비교해 봤을 때, 법원 설치 관련 기사나 보도자료 내용 등이 빈약한 것은 시 집행부의 관심이 적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언급했다.

여미전 의원은 ▲정부 여당 소속 시장의 정무적인 교섭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고, ▲법원 설치 전문조직 구성을 통한 지방·행정법원 설치로 정치·행정의 중심 세종시의 위상을 확립할 것을 요청했다.



김광운 의원
조치원읍, 국민의힘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작은 단위 상생협력, 충청권 특자체 추진 동력 될 것

김광운 의원은 제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자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인근 지자체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광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수도권 일극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특자체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근 지자체와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90개 상생협력 과제(세종-공주 26개, 세종-대전 32개, 세종-청주 10개, 세종-천안 12개)에 대한 평가 체계 마련 및 전반적인 점검 및 보완 ▲정기적인 정책간담회 등 인근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소통·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적극적인 신규 과제 발굴 ▲상생협력 필요성, 목표 등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및 참여 기회 보장 방안 마련을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는 각별한 소명 의식을 갖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할 특자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인근 지자체와의 작은 단위 상생협력을 비롯한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5MIN 5분 자유 발언



김현옥 의원
새롬동, 더불어민주당

제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지능형 신기술과 잔식 기부로 학교 급식 잔반 줄이자

김현옥 의원은 제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능형 신기술과 잔식 기부를 활용해 학교 급식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이날 열린 제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학생 개별 취향과 음식 섭취량 조절 등의 이유로 학교 급식 잔반량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지능형 신기술인 'AI 푸드 스캐너' 시범 도입 ▲학교 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 ▲학생 식문화 개선 캠페인 활동 및 교육 강화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능형 신기술 도입과 학교 잔식 기부로 실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었고 급식 잔반 처리비도 절감할 수 있었다"며 "세종시교육청에서도 잔식 기부 조례 제정 및 푸드뱅크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급식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교육으로 학교 급식 잔반 줄이기 운동을 통해 미래 세대가 식습관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눔과 연대의 힘을 경험하며 환경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박란희 의원
다정동, 더불어민주당

제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세종시의 진정성 있는 한글문화 진흥 정책을 촉구

박란희 의원은 제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무분별한 외국어·외래어 남용을 질타하고, 진정성 있는 한글문화 진흥 정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박란희 의원은 "정부나 자치단체의 각종 서류나 정책들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달되는 말과 글이 학력, 나이, 지역, 직업과 무관하게 그 뜻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며 세종시의 공공언어 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한글사랑 위원회 등에서 제시한 행정용어 순화어가 세종시청과 산하기관에 체계적으로 전달되고 개선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명확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언어 역량 강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우수 직원이나 조직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포상을 통해 동기부여와 책임감을 높여줄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국어책임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을 보강하고, 외부 전문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한글사랑 도시의 자긍심은 정부 행사를 치른다거나 수백, 수천억 규모의 한글 문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언어가 살아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긴급현안질문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세종시, 재정 위기... 대규모 사업 추진 신중해야



유인호 의원
보람동, 더불어민주당

유인호 의원은 최민호 시장을 대상으로 “역대 최고의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 세종시의 재정 여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신규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 시기나 투자 규모를 조정해 달라”며 긴급현안질문을 했다.

유 의원은 질문에 앞서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언급하며, 약 59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돼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예정인데 우리 시 지방세 수입도 898억 원이나 감소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하다고 질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세수 결손이 장기화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는 지방채 발행이나 대출 등에 의존해 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도 재정 위기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을 생각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과 관련하여 최근 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의 국제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심사가 깐깐해져 국비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후 유 의원은 “현재 우리시는 정원박람회 추진을 위한 450억 원의 직접적인 사업 예산 외에도 올해 CIB 국제정원도시 인증을 위한 예산 투여 및 2024년 동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정원 조성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다”며, 간접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세종시는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인수시설 급증, 대규모 사업 추진 등으로 최대 재정가뭄 위기에 처해 있다”라며 “2030년 세종시 완성까지 우리 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성 있는 부채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을 끝까지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주요언론 보도



서울일보 2023년 10월 22일 (토)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창의융합교육축제 체험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살펴

김종석 기자

체험마당 프로그램 체험 및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식재료 배송 점검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창의융합교육축제 체험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살펴 (사진.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울일보/김종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20일 오전 세종시교육청에서 추관하는 '제5회 창의융합교육축제'에 참석하여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오후에는 세종나눔공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급식센터의 전반적 운영 현황을 살피보는 자리를 다한했다.

이날 오전 창의융합축제에서는 세종시 교사와 학생들이 준비한 과학, 수학, SW, 환경 등 학교별 체험마당 부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였으며, 행사 준비에 힘써준 관계 공무원을 격려했다.

참고로 2023 제5회 창의융합축제는 체험, 전시, 강연, 대회, 참여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일부터 21일 이틀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는 참교에 납품하는 농축수산가공품 등 식재료의 품질을 직접 확인하고, 배송 차량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급식산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보고 받았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공공급식지원센터에 원장을 포함하여 5명을 파견했으며, 파견 직원들은 원활한 학교급식지원을 위해 근무하고 있다.

이소희 위원장은 "앞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학교급식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석 기자 silbo1@daum.net

[서울일보] 23.10.22.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창의융합교육축제 체험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살펴

뉴스핌 2023년 10월 27일 (금)

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확정 유공자에 감사패

[세종=뉴스핌] 홍준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과 국회규칙 제정에 기여한 유공자 9명에게 27일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유공자 표상 기념[사진=세종시의회] 2023.10.27 goongeen@newspim.com

이날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은 개인 유공자로 선정된 이해찬 전 국무총리(대리 수상)와 이준희 전 세종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시민단체 유공자로 선정된 ▲김준식 상임고문(국토균형발전과 행정수도를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 ▲성은정 사무처장(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최병조 집행위원장(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시민연대) ▲최창수 공동대표(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법률리비상대책위원회) ▲조희기 기획경영부부장(국토연구원) ▲박정현 자문위원(박포세종의사당 규칙 제정관련자문단) ▲특별위 위원장(전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의장은 "유공자들 덕분에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2021년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지난 10월 국립균형도시 제정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23.10.27. 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확정 유공자에 감사패

충북일보 2023년 11월 02일 (목)

세종시의회 제주서 세종 널리 알렸다

특별자치시도의회 의정박람회 참가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완성 홍보
제주·세종 강원 전북 4개 의회 공동 주최

이종억 기자eok527@daum.net



이순열(오른쪽 두 번째) 세종시의장과 시의원들이 1~2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특별자치시도의회 지방분권 의정박람회'에 참가해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세종시를 홍보하고 있다.

(충북일보) 세종시의회가 1~2일 이틀간 제주도의회에서 4개 시도의회가 공동주최한 '특별자치시도의회 지방분권 의정박람회'에 참가해 세종시를 널리 알렸다.

지방분권 의정박람회는 올해 처음 개최된 행사다. 특별광역자치단체가 출범했거나 출범 예정인 제주·세종 강원 전북 등 4개 지역 의회가 특별법 특작에 맞는 지방분권 모델에 대한 협력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도의회 제안으로 마련됐다.

우리나라 첫 특별광역자치단체는 지난 2006년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며 등장한 제주도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두 번째로 출범했다.

올해 6월에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내세운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광역자치단체로 선포됐다. 내년 1월에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을 내걸고 전북특별자치도가 네 번째 출범을 앞두고 있다.

박형희의 주요내용은 △4개 시도의회 상생협력 업무협약 △특별자치시도 등방성장을 위한 지방의회 협력포럼 구축 토론회 △지방분권 관련 4개 시도의회의장 토크콘서트 △지역별 비전을 담은 전시 부스 운영 △지역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지역별 문화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이순열 의장은 이날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국가균형발전의 새 시대를 위한 새로고침'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했다.

이 의장은 "균형발전을 위해 2000년대 초부터 지속적인 국가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시행되고 있지만 수도권집중 현상은 오히려 심화하고, 비수도권은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며 "행정수도완성과 등방권특별자치체의 성공적인 출범·운영 등 추진동력 확보, 지방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등을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역등성의 격차 해소로 수도권 집중을 막고자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세종연구원 김홍주 책임연구위원은 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 '지자분권시대 선도를 위한 세종시의회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양신일 의원은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확정 등으로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할 지역이다. 세종시법을 현행 개정해 수도로서 정책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원팀'으로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선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세종시의회는 '세종시 탄생과 행정수도를 함께 걸어온 같이라는 주제로 전시 부스도 운영했다. 이곳에서 세종시의 탄생 배경부터 출범 이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확정까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세종시의 비전 등을 홍보했다.

세종시 문화교류 공연팀으로 참가한 안온선 밴드팀은 세종의 대표명소 중 하나인 '이응다리'라는 곡을 선사해 참여자들의 열띤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이순열 의장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특별한 스케일과 비전을 갖고 출범할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가 주축이 돼 지방을 살리고, 수도권 집중체제를 극복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충북일보] 23.11.2. 세종시의회 제주서 세종 널리 알렸다

충청타임즈 2023년 10월 31일 (화)

세종시의회, '찾아가는 의회 교실' 운영

홍순황 기자

박한희 부의장 30~31일 이틀간 한결초서 의회교실 운영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한희 부의장이 지난 30일과 31일 이틀간 한결초등학교 5학년 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회 교실을 운영했다.

'찾아가는 의회 교실은 세종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의회 교실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세종시민이 직접 관내 학교를 방문해 지방의회와 시의원의 역할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질문 답변을 통해 친근한 소통의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의회 교실은 30일, 31일 이틀간 각각 두 번씩 총 4회차로 진행되었으며 회차당 참석 학생은 50여명으로 총 210명의 학생이 의회 교실에 참여했다.

한결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박한희 부의장을 만나 시의회와 시청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의원은 어떻게 되는지,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범위는 무엇인지와 같은 '의회 관련 질문'부터 요보바이 안도 질문에 따른 보행자 안전 문제, 체험학습 관련 노란 버스아이이 운영을 승합자동차 규제 때문에 학생들이 겪는 불편 사항 등 '복합한 사회 현안'까지 다양한 주제로 질도 있는 질문을 이어갔다.

박한희 부의장은 질문에 답하면서도, 세종시에서 개선돼야 할 점과 같은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며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특히 상가 주변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열린 가지 말고 근처에 있는 상점을 이용해볼라고 두루했다.

박한희 부의장은 "오늘 의회 교실을 통해 지역 현안에 관심을 주는 열린한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선출 선거권은 18세 이상 시민에게 주어지지만, 의견 개진은 연령과 관련 없이 가능하니 의회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언제든 편하게 이야기해달라"고 말했다.

/세종 홍순황기자sony2272@cctimes.k

[충청타임즈] 23.10.31. 세종시의회, '찾아가는 의회 교실' 운영

대전투데이 2023년 11월 06일 (월)

세종시의회, 첫 '문화가 있는 날' 도입

김태선

10월 27일 연극 11월 3일 영화 관람…이순열 의장 "다양한 문화 경험 및 사기 진작 기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10월 27일과 11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사무처 직원들에게 연극과 영화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추진했다.

세종시의회사무처는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직원들 간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 진작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무처 직원들은 10월 27일 낭성동 세종예술의전당에서 가족극 '떠아뜨로델루시오'를 관람한 데 이어, 11월 3일에는 영화 '고다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관람했다.

이순열 의장은 "사무처 직원들이 회장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의 영역으로 확대해 직원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사무처는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매년 '문화가 있는 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선 ktshmk@hanmail.net

[대전투데이] 23.11.6. 세종시의회, 첫 '문화가 있는 날' 도입

중도일보 2023년 11월 08일 (청사)

세종시의회, '두 바퀴의 행복, 자전거 타고 출근하기' 행사 진행

8일 오전 8시부터 도담동 시계탑~금강자전거길~어울다리~의암 총 7km 자전거 출근
이순열 의장 "세종시가 친환경 도시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자전거 출근 활성화"

오주영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는 8일 오전 8시부터 도담동 먹자골목 시계탑에서 '두 바퀴의 행복, 자전거 타고 출근하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세종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전거를 이용한 친환경 출퇴근의 중요성과 장점을 알려 탄소중립 시대를 함께하자는 취지다.

이순열 의장과 김종식 부의장, 김광은 김효수 안신일 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10여 명은 자전거를 타고 도담동 시계탑에서 출발해 방축천-제천-금강 자전거길과 어울다리 넝쿠골 거쳐 세종시의회에 도착했다.

참여자들은 총 7km를 자전거 출근을 통해 교통 체증 없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즐거움과 편리함을 체험했다.

이 의장은 "자전거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1석 3조의 이동수단"이라며 "세종시가 친환경 자전거 도시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두 바퀴의 행복, 자전거 타고 출근하기'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69

[중도일보] 23.11.8. 세종시의회, '두 바퀴의 행복, 자전거 타고 출근하기' 행사 진행

중앙매일 2023년 11월 17일 (충청/강원)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자율적 운영개선 건의안'채택

김정연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 제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서 의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 참석 후 기념촬영 모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장이 제출한'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자율적 운영개선 건의안'이 지난 15일 광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순열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의장협의회 사무처로부터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결과 등의 보고 안건을 청취한 후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이순열 의장이 제출한'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자율적 운영개선 건의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자 또는 제2자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방의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의회가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2차 정례회 기간은 다음 연도 본예산안 등의 중요한 안건을 함께 처리해야 하는 만큼 지방의회는 물론 집행기관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관련한 조치를 위해 예산 반영이 필요하더라도 적시적인 조치가 곤란한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종시의회는 제1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5~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시행하는 초기 단계로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아울러 지난해 결산 승인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함께 처리하는 경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제주특별법'특례조항(제42조)에 따라 조례로 정해 지난달에 개회하는 임시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이에 대해"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이 의장이 제출한'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자율적 운영개선 건의안'외에도'지방소멸 위기지역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도입 건의안'등 10여 개의 상정 안건이 가결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중앙매일] 23.11.17. 전국 시_도의회 의장단,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자율적 운영개선 건의안' 채택

중부매일 2023년 11월 12일 (청사)

세종시의회 산건위, 소상공인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

신세희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나성동 세종신용보증재단 5층 대회의실에서 세종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세종시의회

[중부매일 신세희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나성동 세종신용보증재단 5층 대회의실에서 세종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현정 위원장을 비롯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한, 박란희 의원, 황학록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세종신용보증재단 김호병 이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세종시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현재 상황은 코로나19 양시보다 심각하다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들을 전했다.

세종신용보증재단 김호병 이사장은 "세종지역 내 사업자들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있는 등 현재 경기 상황이 악화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신규 융자상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위원장은 "소상공인연합회와 대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지속하여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전했다.

정경희 의원은 "대부분의 세종시 축제는 호수공원과 이응다리에서 진행이 되어 아쉽다"며, "나성동 도시상업활성화에서 축제를 열면 주변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한희 의원은 "소상공인 전담 지원기관인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립 당위성은 충분하나, 향후 설립될 일자리정책전환위원회의 업무 이원화 방지 등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골목의 살려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신세희 기자 zzvv2504@naver.com

[중부매일] 23.11.12. 세종시의회 산건위, 소상공인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

굿모닝충청 2023년 11월 20일 (충청)

세종시의회 예결위, 추경안 및 예산안 사전감담회 개최

박수빈 기자

ㅁ교육청 재정여건, 편성 방향 등 청취
김정옥 위원장 "취약계층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치질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역할 다하겠다"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옥, 이하 예결특위)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 2023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11월 17일 세종시 및 교육청과의 사전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굿모닝충청=박수빈 기자)

[굿모닝충청=박수빈 기자]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옥, 이하 예결특위)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 2023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11월 17일 세종시 및 교육청과의 사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 예결특위 위원들은 세종시교육청 조직예산과장, 세종시청 예산담당관 순으로 추경예산안, 재정 여건, 예산안 편성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년도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김정옥 위원장은 "안정적 안정을 위한 재정이 경기에 대응하는 측면을 고려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행정서비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올해와 내년에 세수결손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 등 필요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예결특위의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2023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2024년도 예산안 심사는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굿모닝충청] 23.11.20.세종시의회 예결위, 추경안 및 예산안 사전감담회 개최

국제뉴스 2023년 11월 16일 (전국)

세종시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신건수 기자

- 올해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 -

(세종=국제뉴스) 신건수 기자 = 세종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지난 15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부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시정에 대한 면밀한 관심의 끈을 놓을 틈 없이 나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성

임채성 위원장은 "우리 시 청년인구 감소와 관련해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집행부에서는 정책투자장을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등도 힘껏 나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인호 부위원장은 "최근 국가균형발전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시책은 국가?중앙부처와의 관계에서만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며 "현재 우리 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이 올바른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구보로만 나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형 위원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 주변시가 과제하의 대부분이 청년층이라는 안타까운 보도가 있었다. 사전에 전세계약 등과 관련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준 후 지원해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 발생을 최대한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중식 위원은 "조치원 원도심 일원 로컬콘텐츠만은 조성사업과 관련해 작년 12월에 열렸던 빛의거리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세종 탄육제와 연계해 내년에도 빛의정원 사업까지 문학가 거리, 청과물 거리 등을 포함한 다양한 특화거리 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위원은 현재 시정 4기 공약사항 등 주요 시정사업들이 많은 난항을 겪고 있다며, "지방법원 설치에 관한 건과이 이번 법사회에 상정되지 않았는데, 꾸준히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하며, "공동캠퍼스 조성과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도 착착적으로 정거나가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여미전 위원은 "고등만 우리 시의 보통고부세 특례연장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왔는데 보통교부세 특례연장 법안이 법안소위를 요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게 되었다"며,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본회의 통과까지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석 위원은 "올해 우리 시 관내 청년이 1,919명 감소했다고 들었다. 지금 청년정책들이 원도심 위주로 돌려있는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원도심을 위주로만 시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신도심 내에서도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문화, 복지 등 다방면의 정책들이 균형 있게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우리 세종시가 청거나가야 할 부분들은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 여러 사업 가운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2024년 본격산을 포함한 이번 제86회 정례회 안건 심의 시 면밀하게 함께 살펴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지 심도 있게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는 15일 소관 부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12월 4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신건수 기자 aprdt21@hanmail.net

[국제뉴스] 23.11.16. 세종시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투데이충남 2023년 11월 20일 (청사)

세종시의회 운영위, 정례회 제2차 회의

이지윤 기자

제3회 추경예산안 등 4개 안건 심사
인사 청문회 준비에 안전 기해줄 것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 86회 정례회 2차 회의 모습/세종시의회

[세종=투데이충남]이지윤 기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7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의회사무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023년 세종시 제3회 추경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20일 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2023년도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투진한 사항과 보완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며 조속한 개선을 당부했다.

윤인호 위원장은 "임시직 특히 이후 인청직 조직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사기록의 기능상실 등 현장 속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적을 도입된 인사청문회 관이에 안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김동민 부위원장은 설물경기 둔화로 인한 세수의 세수 부족 상황을 언급하며, 2024년 편성 예산 심사 시 국외연수비 등 의의비 예산도 불요불급한 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낭비요인의 사전 차단을 강조했다.

김광준 위원은 의회의 입법, 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의회사무처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담당관과 전문위원실 간 유기적 업무협조를 주문했다.

김현숙 위원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업무 균등성과 인사에 대한 내부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며 "적절하고 합리적인 업무분장이 되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위원은 "시기적으로 바른 정례회 기간에는 정책지원관의 업무 몰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5분 발언 등 최소 기간을 지켜 의안의 질적 하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의회사무처 조직 내 상호 간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 정립을 위해 애써달라"고 말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비 부족분을 만병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없조 예산 대비 2개 2,110만 원 증액해 원안 가결하고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세종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감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 등을 위해 심사가 보류됐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은 오는 27일, 제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투데이충남] 23.11.20. 세종시의회 운영위, 정례회 제2차 회의

역설의 계절 겨울





무더웠던 계절이 있었나, 땀 흘렸던 기억이 무색할 만큼 낮은 온도의 계절이 다가왔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더 조용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그래서 전의면으로 향했다. 세종 중심에서 북쪽으로 30분, 한참을 달려 도착한 전의면에는 통일신라 말기 도선국사가 창건했다고 알려진 **비암사(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비암사길 137)**가 있다. 그리 크지 않은 사찰에 오르니 늦가을에 마저 다 지지 않은 단풍과 초겨울의 추위가 옅은 입김으로 묻어난다.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는 절과 도시의 건물에 부딪힌 적 없는 바람이 들려주는 풍경소리는 낮은 온도로 얼었던 마음을 흔든다.

비암사는 가을과 겨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절이다. 물론 여름에 찾아도 좋겠지만, 더위보다는 추위가 어울리는 장소다. 스산한 기온과 마른 잎이 발아래에서 바스러지는 소리를 들으면 비로소 쉴 새 없이 북적거리는 도시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심신을 얻는다. 하지만 부처가 속세로부터 떠나 결국 얻은 것이 삶에 대한 깨달음이었던 것처럼, 잠시 정적을 즐겨 자유로워진 몸과 마음으로 돌아갈 곳은 결국 내가 살던 곳이라는 깨달음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비암사에서 아래로 나 있는 큰길을 따라 10분 정도 걸으면 작은 책방을 만날 수 있다. 바로 **단비책방**(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비암사길75)이다. 잠시 수행자의 마음으로 산과 사찰을 만났던 몸이 비로소 다시 세상을 만난다. 이곳은 서울에서 귀촌한 부부가 독립출판물을 전문으로 판매하며 운영하는 곳이다. 현관에 들어서니 추위로 황량해진 마음에 세상의 이야기가 단비처럼 내린다. 책의 주제가 정해져 있는 책방은 아니었다. 그저 주인장 마음 가는 대로, 따뜻한 말들이 모인 공간이다. 박완서, 김연수, 한강…. 익숙한 작가들의 이름도 만난다.

2층 다락방은 층고가 높아 트여있는 1층과는 달리 안락하면서도 독립된 느낌을 준다.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꿨던 나만의 아지트처럼, 가끔 책 속 세계에 깊이 빠져들고 싶을 때 제격인 공간이다. 키가 큰 편이라면 허리를 다 펴지는 못할 높이지만, 이 다락방에선 때로 모자람이 그 어떤 충분함보다 더 충만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세종의 최북단 전의면에서 보낸 시간은 차갑고도 따뜻했다. 이제 막 두터워지기 시작한 외투를 헤집고 들어오는 겨울의 시작점을 안고, 세상을 떠나기도, 다시 만나기도 했던 짧은 여행. 겨울은 추위로 인해 온기가 더욱 따뜻해지는 역설의 계절이다. 이번 겨울은 원래 마음을 두었던 곳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향해보자. 전의면에서의 한나절은 무채의 계절을 식혔다가 이내 달구고는 당신의 겨울을 형용할 수 있는 시간 한 조각을 남겨줄 것이다. 글·사진_김영주







의정 주요 뉴스

231102



특별자치시·도의회 지방분권 의정박람회 참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개최되는 '특별자치시도의회 지방분권 의정박람회'에 참가했다.

지방분권 의정박람회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 제주·세종·강원·전북 등 4개 특별광역자치단체가 출범 또는 출범 예정에 따라 각 지역 특성과 특별법 목적에 맞는 지방분권 모델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의회는 '세종시 탄생과 행정수도를 향해 걸어온 길'이라는 주제로 전시 부스를 운영하여 세종시의 탄생 배경, 출범 이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확정까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세종시의 비전 등을 홍보했다.

끝으로 이순열 의장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특별한 소명과 비전을 갖고 출범한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가 주축이 되어 지방을 살리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방안 등을 지속하여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31103



첫 '문화가 있는 날' 도입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0월 27일과 11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사무처 직원들에게 연극과 영화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추진했다.

세종시의회사무처는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직원들 간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 진작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무처 직원들은 10월 27일 나성동 세종예술의전당에서 가족극 '떼아뜨로델루시오'를 관람한 데 이어, 11월 3일에는 나성동 메가박스에서 영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관람했다.

이순열 의장은 "사무처 직원들이 희망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다양한 문화예술의 영역으로 확대해 직원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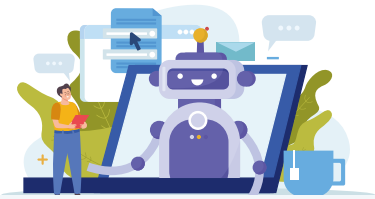
한편, 세종시의회사무처는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매년 '문화가 있는 날'을 추진할 계획이다.

231106



챗GPT 이해와 활용방안 교육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월 6일 오후 의원 및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챗GPT 교육을 실시했다.
'챗GPT 이해와 활용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디지털 신기술인 챗GPT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회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교육강사로 위촉된 강인태 충청남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은 의회 관련 보도자료 작성, 회의록 기록, 조례 제·개정 등 챗GPT로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질문 방법과 다양한 활용법 등을 소개하였다.
이순열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챗GPT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정활동에 인공지능 신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인 의사 운영 및 입법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31108



'두 바퀴의 행복, 자전거 타고 출근하기' 행사 진행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월 8일 오전 8시부터 도담동 먹자골목 시계탑에서 '두 바퀴의 행복, 자전거 타고 출근하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이순열 의장과 김충식 부의장, 김광운 의원, 김효숙 의원, 안신일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10여 명은 자전거를 타고 도담동 시계탑에서 출발해 방축천·제천·금강 자전거길과 이응다리 남측을 거쳐 세종시의회에 도착했다.
이순열 의장은 "자전거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1석 3조의 이동수단"이라며 "세종시가 친환경 자전거 도시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두 바퀴의 행복, 자전거 타고 출근하기'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31115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자율적 운영개선 건의안' 채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자율적 운영개선 건의안'이 15일 광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순열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의장협의회 사무처로부터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결과 등의 보고 안건을 청취한 후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이순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자율적 운영개선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방의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의회가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2차 정례회 기간은 다음 연도 본예산안 등의 중요한 안건을 함께 처리해야 하는 만큼 지방의회는 물론 집행기관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관련한 조치를 위해 예산 반영이 필요하더라도 적시적인 조치가 곤란한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종시의회는 제1차 정례회 기간인 5~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시행하는 초기 단계로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아울러 전년도 결산 승인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함께 처리하는 경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법」 특례조항(제42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10월에 개최되는 임시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이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자율적 운영개선 건의안' 외에도 '지방소멸 위기지역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도입 건의안' 등 10여 개의 상정 안건이 가결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연구 모임 뉴스

231103

‘행정·연구 우수 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 활동 마무리

*



‘행정·연구 우수 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은 11월 3일 제6차 간담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용역 최종보고가 진행되었으며 중간보고회 때 제기되었던 인재 모집과 활용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과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연도별 구축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소중한 소통의 시간이었다. 연구모임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활동 소감을 밝혔다.

김현옥 대표의원은 “연구모임 종료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다양한 의견 등을 청취하여 실질적인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31107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 및 발전방안 제시

*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은 11월 7일 ‘자치경찰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유인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충식·김동빈·이현정 의원 및 연구모임 회원 전원과 자치경찰연구원 서준배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자치경찰연구원이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발굴한 ‘세종자치경찰의 발전 모형’ 등 현재까지 수행한 연구 과제에 대한 최종 보고와 협의의 시간을 가졌다.

유인호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세종시 맞춤형 치안 시책과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세종이 이원화 모형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하고 “연구에서 제안된 세종엔 앱 활용, 시민안전 통합상황실 신설, 교통정보 DB예산 확보 등은 세종시 자치경찰제도의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연구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연구 모임 뉴스

231103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연구모임’ 활동 마무리

*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소희)’은 11월 13일 제6차 간담회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약 8개월 기간 연구모임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용역 최종보고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지난 제5차 간담회 때 제기되었던 가장 이상적이고 혁신적인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모델 도출 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세종시에서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와 세종시 학부모가 희망하는 교육모델을 어떻게 도출시킬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연구모임의 연구 결과가 향후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세종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조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희 대표의원은 “이번 계기를 통해 우리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희망이 있는 도시, 아이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31103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방안 마련 연구모임’, 활동마무리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은 11월 13일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제5차 간담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이날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를 청취하고 연구진의 제언에 대한 의견과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조직위원회 등 관계 부처 등과 공유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김현미 대표의원은 “연구모임 종료 이후에도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협력과제 및 실행 방안을 토대로 실질적인 정책 구현을 위해 4개 시도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소통할 것이며, 2027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의 성공적인 개최가 대한민국의 시도 협력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231122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활동 종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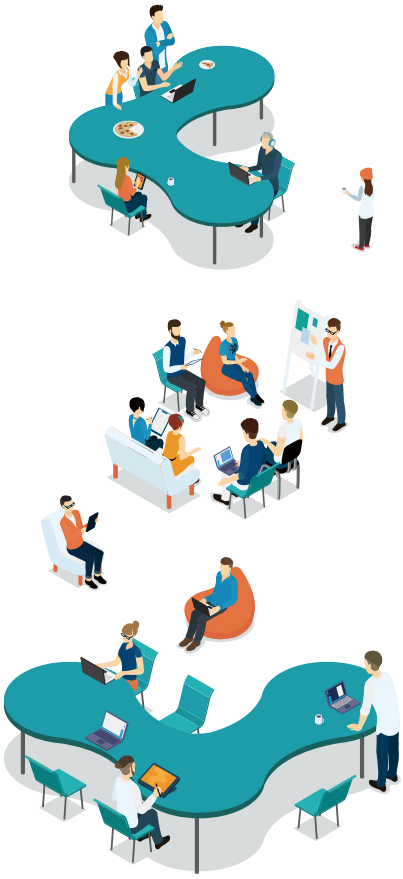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이 11월 22일 제7차 간담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재)대전세종연구원으로부터 최종보고가 있었으며, 중간보고 때 제기되었던 수경시설 등 상징 인프라 구축 등의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

참석자들은 문화예술 행사를 사례로 들며, 행사에 따른 상가 활성화 효과에 대해 상인과 시민들의 관점, 업종 등에 따라 입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측면에서 상가 활성화 정책을 검토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했다.

임채성 대표의원은 연구모임에 함께 해 온 연구모임 회원 및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연구모임을 계기로 상가 활성화 방안을 지속하여 모색하고, 상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려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입법정보

Ⅰ 생 활 법 령 • 59
Ⅱ 주요입법동향 • 63
Ⅲ 법령해석사례 • 67
Ⅳ 최근시행법령 • 71
Ⅴ 타 지자체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 73



I 생활법령

사례 01

방송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써 몇몇 언론매체를 통해 이름과 얼굴을 알려온 나얼굴씨는 어린이 합창단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그는 합창단이 동계올림픽 개막식 행사에 초대를 받았다며 합창단 단원의 학부모들에게 참가비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참가비 전액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항의와 함께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나얼굴씨와 직원들이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한 학부모가 핸드폰을 이용해 이 상황을 약 4분 48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OOO 방송국의 기자인 박기자는 영상을 제보 받아 관련 내용을 뉴스에 방송하도록 하였습니다.

편집된 동영상 중 약 32초간 나얼굴씨의 얼굴이 모자이크 편집없이 방송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고, 나얼굴씨는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 OOO 방송국의 박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나얼굴씨는 OOO 방송국의 박기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① 나얼굴

해당 보도를 통해 저의 얼굴이 전국적으로 방송되었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사전에 묻지도 않고 제 얼굴과 함께 이렇게 불리한 내용을 방송하는 건 초상권침해 아닌가요? 당연히 저에게 손해배상 해주어야 합니다.

② 박기자

비록 나얼굴씨의 얼굴을 저희가 임의로 보도자료로 사용하였지만 저희가 보도한 뉴스 내용은 부당한 사건을 알리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었고, 나얼굴씨는 이미 여러번 방송에 나온 유명인이므로 공적 관심사인 뉴스에 인용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을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평결

정답은 ❷번. "박기자: 비록 나얼굴씨의 얼굴을 저희가 임의로 보도자료로 사용하였지만 저희가 보도한 뉴스 내용은 부당한 사건을 알리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었고, 나얼굴씨는 이미 여러번 방송에 나온 유명인이므로 공적 관심사인 뉴스에 인용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을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입니다.

위 사례는 방송으로 인한 초상권침해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다253423 판결).

가. 방송 당시 원고는 다문화전문가 및 특정 정치인 지지모임의 회장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언론매체에 이름과 얼굴을 알려왔습니다. 원고는 이를 통하여 사회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공적 인물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의 공적 활동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나. 합창단의 참가비 전액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부담함에도 학부모들에게 추가로 참가비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 사건 방송 전날에는 관련 보도도 방송되었습니다. 그 보도에서 원고는 해당 사건 센터의 대표로서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며 반론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방송 내용은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 사건 방송은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국내 최초 어린이 다문화합창단의 회계 등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중의 관심과 원고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보도된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라. 방송에서 원고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기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원고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며 반론 인터뷰를 한데다가, 사건 방송이 포함된 다른 보도영상에 원고의 사진과 영상이 사용되었고, 방송 자막에도 원고의 이름이 표시되었으므로, 설령 원고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게 하였더라도 시청자들은 등장인물이 원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피고들이 사건 동영상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방송을 구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까지 본다면 그 표현 내용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이 사례에서는 방송으로 나얼굴씨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 공적 인물로 활동하였고 ▲ 방송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며 ▲ 보도된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나얼굴씨는 박기자에게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평 결 일 : 2023년 10월 16일
참조판례 : 손해배상

Ⅰ 생활법령

사례 02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지 않으면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A씨는 상업지역 지상건물 3, 4층에서 앵무새를 사육하고 번식하여 판매하는 판매장을 꾸준히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A씨의 판매장 바로 옆 부지에서 B건설의 건물 신축공사가 시작되었고, 판매장에 공사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잘 사육하던 앵무새들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폐사하는 모습을 보이자 A씨는 피해를 입고 있음을 항의하였고, 관할 시청에도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B건설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업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인'주간 70dB(A) 이하'를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 중반에는 현장에 방음벽도 설치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B건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판매장에 피해를 입어도 A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걸까요?



① A씨

공사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음·진동 때문에 몇 년간이나 잘 운영해오던 제 판매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어마어마한데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② B건설

공사하면서 어느 정도 소음·진동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거죠. 저희는 상업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도 잘 준수하고 있고 방음벽도 설치해서 소음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손해배상이라니 말도 안돼요!

평결

정답은 ❶번. "A씨: 공사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음·진동 때문에 몇 년간이나 잘 운영해오던 제 판매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어마어마한데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요?"입니다.

위 사례는 B건설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A씨가 받은 피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하는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으로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10000 판결 참조).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304마리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앵무새가 폐사하였다고 신고한 바 있고 담당공무원도 이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앵무새 사육두수의 거의 절반에 이른다. 이 사건 판매장의 월별 매출액, 사료·새장 등의 연간 매입액, 앵무새 연간 매입액도 이 사건 건물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나. 여기에다 관상조류는 60~70dB(A)의 소음에서는 10~20%의, 70~80dB(A)의 소음에서는 20~30%의 폐사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한 연구결과나 건설공사로 발생하는 불규칙하고 충격음을 동반하는 소음이 앵무새 등 조류에게 더 해로울 수 있다는 감정내용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발생한 소음이 원고의 앵무새 폐사 피해에 기여한 정도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례에서 B건설의 공사현장은 생활소음규제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하고 있더라도 A씨의 현실적인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B건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평 결 일 : 2023년 10월 16일
참조판례 : 손해배상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솔로몬의 재판)

Ⅱ 주요입법동향

01 최근공포법령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3. 9. 27. / 법률 제19735호)

-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공무집행방해죄 · 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악성 민원까지 확대하고,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즉시 분리 및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업무 및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관련 행정체계를 기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개편하고,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며, 조사 ·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함.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1. 1. / 법률 제19796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문화유산 보존 ·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유산전담관을 지정 · 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며, 시 · 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함.

3.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7. 19. / 대통령령 제19816호)

- 경제적 · 심리적 ·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

02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주요법안)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회)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설하는 공동캠퍼스 운영 공익법인의 운영초기 단계의 안정적인 재정마련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 근거와, 공동캠퍼스 운영 공익법인의 재원조달 방법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되, 공동캠퍼스 내 대학들의 입주가 완료되는 202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공익법인의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회)

-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으며, 지역 내 총생산 비중 또한 52%에 달하는 등 국토의 양극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젊은 인재와 기업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며 수도권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수도권과 지방도시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수도권과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토공간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비수도권에 사람과 일자리, 자본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지역혁신 성장거점을 조성하여 지방도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지방 대도시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산업 · 주거 · 문화시설을 결합한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통해 지방도시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행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독서소외인에 대해서도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신체적 장애 및 경제적 · 사회적 · 지리적 제약에 따른 '독서소외인'에 대한 범위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독서소외인에 대한 독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독서 문화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03
최근 국회 접수 법안(주요법안)

1. 지방의회법안(박성민 의원 등 15인)

- 지난 1991년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 성숙에 이바지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지방의회의 전문성, 자율성 등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조직 ·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등 10인)

- 현행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에서 청년의 시기에 진행되는 취업, 결혼 및 출산 등을 하는 연령이 늦어지고 있어 청년정책의 수요대상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까지 2024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하도록 규정하여 점진적으로 청년지원의 수혜자를 늘리고, 수요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호 및 부칙 제2조).

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등 11인)

- 최근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의 수가 약 70여명에 이르고 있어 공직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음.
-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직에 임용되어 직무를 수행할 경우 원활한 공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공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트릴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3호라목 신설).

04 최근입법예고 (주요법령)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등 11인)
입법예고(의견제출'23. 11. 19.까지)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유형 ·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특수교육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원격수업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시책 수립 · 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특수학급 등의 설치 기준을 강화함과 함께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여 효과적인 특수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5호, 제2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27조, 제27조의2 신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5인)
입법예고(의견제출'23. 11. 23.까지)

-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 · 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대기오염물질 · 악취 · 소음 · 폐기물 배출 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일정한 시설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런데,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의 경우 비산 먼지의 발생과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해당 업종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 · 석회 · 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을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제30호 신설 등).

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등 13인)
입법예고(의견제출'23. 11. 24.까지)

- 현행법은 징역 · 금고의 기간에 있어서 무기(無期)를 규정하고 있으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경우에도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기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사회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음.
- 그러나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흉악하고 준법의식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었던 범죄자의 경우에는 가석방 후에도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가석방과 관련하여서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

Ⅲ 법령해석사례

사례 0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기술료 납부방법이 현금 납부로 한정되는지 여부

질의(법제처-23-0668 / 회신일자 '23. 11. 1.)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기술료 납부방법이 현금 납부로 한정되는지 여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 등 관련)

질의요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을 공익신고기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 「감사원법」 제20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감사원이 공무원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에 해당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감사원은 공무원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회계 검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 감찰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서는 공익신고기관을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제1호),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제2호), 수사기관(제3호), 국민권익위원회(제4호) 등으로 규정하면서,

감사원을 공익신고기관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에서는 감사원이 「감사원법」에 따른 권한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행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으로서 공익신고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직자 및 공공기관 등 공공영역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 또는 부정청탁 등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의 다른 법률과는 달리 주로 민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같은 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입법목적 및 공익침해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은 민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을 소관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일차적인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무 행정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행정기관 및 공무원 등에 대한 포괄적인 직무감찰 등을 수행하는 감사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유사한 다른 법률의 체계를 살펴보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제도와 유사하나 주로 공직자 및 공공기관 등 공공영역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 등 신고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 부패행위, 부정청탁 등 행위 및 부정청구 등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기관으로 수사기관과 함께 감사원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여 대상 행위에 대해 포괄적인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과 같이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포괄적인 직무 감찰 권한을 가진 감사원을 일반적인 신고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위반행위가 발생하거나 신고 내용을 소관하는 해당 기관 또는 감독기관은 별도의 신고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일차적인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무 행정기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감사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법 별표의 471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중에 감사원 소관 법률이 확인되지도 않는바, 감사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감사원은 공무원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해석사례

Ⅲ 법령해석사례

사례 02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에 관계 행정기관 등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 여부

질의(법제처-23-0392 / 회신일자 '23. 11. 3.)

②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결과에 관계 행정기관 등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 여부(「물관리기본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질의요지

- 「물관리기본법」 제20조제1항에서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각 호에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 「물관리기본법」 제22조 각 호(제3호 및 제6호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사항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에 관계 행정기관등*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

* 「물관리기본법」 제22조 각 호에 따른 심의·의결사항과 관련된 행정기관 등으로서, 환경부장관(제1호),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제2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제4호), 관계 중앙행정기관(제5호)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회 답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관계 행정기관등이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먼저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서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에서는 제22조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사항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종국적인 의사 결정 권한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부여하거나,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관계 행정기관 등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기본법」 제20조 및 제22조에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의결"이라는 용어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1인으로 되어 있는 독임제 행정기관과는 달리 의사결정의 주체가 다수인 위원회 조직에서 다수의 의견을 모으는 행위의 형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의결"은 위원회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의결"이라는 표현만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관계 행정기관등이 법적으로 구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물관리기본법」 제27조제4항 및 제29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2조제2호(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및 제5호(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계획과 물관리 관련 계획 및 유역계획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물관리 관련 계획 및 유역계획의 국가계획 부합 여부'라는 특정한 사항에 한정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을 근거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같은 법 제27조제4항 후단 및 제29조제2항의 반대해석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계획 조정 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바, 해당 규정만으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과 책임을 변경하는 정도로 물관리 관련 계획에 관한 종국적인 의사 결정 권한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부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보면, 관계 행정기관등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같은 법 제22조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물관리기본법」이 2018년 6월 12일 법률 제15653호로 제정될 당시의 입법자료에 따르면 같은 법은 기존의 물관리 정책 관련 기구인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와 수질개선기획단 등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사전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부처간 물관리 정책 관련 이견을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물관련 정책 및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설치하여 개별 부처에서 수립하는 물관리 계획을 연계하는 국가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바, 「물관리기본법」 제22조 각 호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통합된 국가계획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의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해당 정책과 계획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같은 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의 물관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련된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관계 행정기관등이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해석사례

Ⅳ 최근시행법령

0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 10. 12. 시행)

• 지방보조금 제도의 적정하고 투명한 집행 · 관리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 통지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집행 · 관리와 관련된 자료 · 정보의 요청 · 보호 · 파기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기준과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함.

0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23. 10. 12. 시행)

•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 지원 업무를 전자화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 보유 · 이용 · 제공 ·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함.

0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 10. 19. 시행)

• 교육감당선인이 교육감직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도록 하고,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 ·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및 위촉권자를 교육감당선인으로 변경하며,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장 · 부위원장 및 위원의 결격사유,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및 직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함.



0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23. 10. 24. 시행)

-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지구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주민 의견 청취, 토지 현물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주택단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복합사업을 시행하는 특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비용 지원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의 해당 주택 거주의무 등에 관하여 「주택법」을 준용하던 것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3. 10. 24. 시행)

- 어린이통학버스의 이용 범위인'어린이의 통학 등'에서'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시켜 어린이통학버스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 한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및 해당 면허를 받은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06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23. 11. 16. 시행)

- 전기공사의 경우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분리발주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하도급에 따른 저가 수주로 인한 품질 저하로 공사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발주하도록 하려는 것임.

V 타 지자체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01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제정, 시행 '23. 9. 27.]

제안이유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지원하여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고 시민 불편 해소 및 의료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제1조~제2조)
나.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제4조)
다. 달빛어린이병원의 관리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제5조~제6조)

02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제정, 시행 '23. 9. 27.]

제안이유

긴급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의 제거 또는 이동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구체적인 기준과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견인차량과 인력 등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제2조)
나. 견인차량과 인력 등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제4조)
다. 견인차량 및 비용의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제5조)

03 천안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 '23. 11. 1.]

제안이유

천안시가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예산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화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행사 예산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제3조)
나. 행사 예산의 공개 내용에 관한 사항(제4조)
다. 행사 예산의 공개 의무 및 공개 방법에 관한 사항 (제5조~제6조)
라. 행사 예산의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제7조)

0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시행 '23. 11. 15.]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한 경우 의회가 경건하고 엄숙하게 장례를 집행하여 예우를 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장례위원회 심의 및 선정에 관한 사항(제3조~제4조)
나. 의회장 장례위원회의 구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제5조)
다. 장례위원회 기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제6조)
라. 장례위원회 비용 지원 및 조기게양에 관한 사항 (제7조)

세종시의회 2024년 상반기 회기 일정 안내

1월 (임시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신정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제87회 임시회 : 1.24. ~ 2.05.(13일)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등 –

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설 연휴 2.9~2.12

3월 (임시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삼일절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31	25	26	27	28	29	30

제88회 임시회 : 3.5. ~ 3.19.(15일)
– 시정질문, 조례안 등 –

4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식목일	6
7	8	9	10 국회의원 선거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제87회 임시회 : 1.24. ~ 2.05.(13일)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등 –

5월 (정례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근로자날	2	3	4
5 어린이날	6	7	8	9	10	11
12	13	14	15 석가탄신일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제89회 제1차 정례회 : 5.20. ~ 6.21.(33일)
행정사무감사, 결산 승인,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등

6월 (정례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30	24	25	26	27	28	29

본회의 예정일 상임위 예정일 ※ 기본일정은 의정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종시의회 운영 미디어 채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시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온라인 미디어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가 생중계되고 있으며, **유튜브**에서는 **각종 홍보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https://council.sejong.g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ouncilsejong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독자 투고 안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식지 **계간 〈세종의정〉**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나 감동적인 사연, 시의회 방청 및 방문을 통해 느낀 점, **계간 〈세종의정〉**이 진열된 사진과 함께 소식지를 읽은 소감, 의회에 바라는 글 등을 보내주시면 소중히 싣겠습니다.

- **증명사진 및 관련 사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보내실 곳

우 편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2층 의정담당관 소식지 담당자 앞

전 화 044.300.7248 **팩 스** 044.300.7219

이메일 yjk78901@korea.kr

소식지 구독 신청

세종시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식지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는 시민께서는 아래 경로로 구독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s://council.sejong.go.kr/) 접속→홍보관→의회간행물→의회소식지 구독 신청

QR코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인터넷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방송보러가기 counciltv.sejong.go.kr

+입법정보
계간 세종의정
I 겨울호 I


의회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